

포근한 날씨... 전통 장 담그는 강진 신기마을



포근한 날씨를 보인 20일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며 활짝 웃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6억원의 판매고를 올린데 이어 올해는 7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과장님 오니 한복 입어라?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 광주시 관광협회

시청 간부 방문 한다며 새벽에 문자 호들갑

교육생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판

광주시 관광협회측이 새벽 시간, 광주에서 위탁받아 진행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갑(甲)인 광주시 관계자 참여 사실을 알리며 개량 한복 착용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광협회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광주에서 2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점을 감안, ‘광주시 심기’만 살피는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른바 ‘슈퍼갑’인 광주시 눈치를 보면서 ‘을’ 중의 ‘을’인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갑질’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광협회는 20일 새벽 3시 관광협회 보수교육 담당자 명의로 문화관광해설사 수십여명에게 개량한복 착용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정된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60~70명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협회는 참석자들에게 ‘금일 보수교육시 관광과장님 인시치(인사처)

래방(來訪) 예정입니다. -개량 한복 착용 부탁드립니다- 관광협회 ○○○ 배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관광협회의 문자를 받은 해설사 중 3분의 1 가량이 20여명은 이날 광주대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생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생활 한복을 입고 오라는데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느냐”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이런 문자를 보냈겠냐”고 말했다.

광주시 관광협회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지 배치·근무 평가 및 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해 해설사들에게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해설사들은 근무지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생활 한복을 입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해설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문자를 보내고 강요하는 게 모르겠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문화·관광해설사 A씨는 “광주시에 해설사들에게 생활 한복을 제공해

금일 보수교육시 관광과장님 인시치 래방예정입니다.-개량한복 착용부탁드립니다- 관광협회 ○○○ 배상-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준 것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단정한 옷차림과 자세로 관광객들을 맞으라는 의미지 ‘아부’할 때 쟁쟁어라고 사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관광협회가 이를 지원키로 확정된 상태다.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시 관광과장 방문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면서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낸 것은 이날 공식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받는데 놀러가는 복장을 하고 오면 해설사로서 품위가 아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 아니냐. 그래서 복장을 갖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업권 갈등’ 해남농협, 진도축협에 15억 손해배상 청구

농협 “이미지 손상·손실 보상은 당연”

축협 “판례에도 없는 일... 지나치다”

점포개설 갈등에서 시작된 해남농협과 해남진도축협의 소송전이 15억 짜리 손해배상으로 번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400여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민사 상판에 이른 지역 영세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 입점하는 것에 대한 고민 대신, 잇속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해남농협이 해남군 고도리에 세워진 축협의 하나로마트(1100㎡)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농협 하나로마트(1967㎡)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축협은 가짜이나 지역 상권이 열악한데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지도 지원 규정’ 상 ‘같은 조직별 신용점포 설립시 500m의 거리 제한을 둔다’는

규정을 내세워 해남농협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3년 만에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 이후 해당 부지에 하나로마트를 건설하고 축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재판이 길어지면서 마트 개점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가 발생한 만큼 축협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농협측이 내세운 이유다.

해남농협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4억5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축협은 소송에 이긴 것도 모자라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축협측은 “가처분 신청 및 가압류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데, 해남지역에서 한 차례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이런 식이면 ‘겉나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내비쳤다.

농협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마트 설립에 착수했는데 괜한 소송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분명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축협이 제기한 소송으로 실추된 농협마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송에 앞서 포화 상태나 다름없는 시·군 ‘하나로 마트’에 따른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 침체 문제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광주고법은 다음달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3분 해질 18시 20분 달출 00시 00분 달몰 10시 25분

쌀쌀한 아침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감기지수 높겠다.

광주	맑음	-5/8℃
목포	맑음	-3/7℃
여수	맑음	0/10℃
나주	맑음	-7/8℃
완도	맑음	-1/8℃
구례	맑음	-6/10℃
강진	맑음	-4/9℃
해남	맑음	-5/8℃
장흥	맑음	-5/9℃
순천	맑음	-2/10℃
영광	맑음	-6/6℃
진도	맑음	-3/6℃
전주	맑음	-5/8℃
군산	맑음	-5/7℃
남원	맑음	-7/7℃
홍산도	맑음	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5.0~1.5m 관심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2.0m 관심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5:59 11:09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0:34 06:36
북서~북 0.5m 12:46 18:4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씨						
최저/최고	-4/9	-2/11	-1/13	2/13	3/11	5/10

자동차 공회전 내달부터 집중 단속

5분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불법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백화점,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계도

와 단속이 진행된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차, 가스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이다.

경차·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차량이 후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나 후진 경고음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어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석 오른쪽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달게 돼 있으나 이번에는 왼쪽까지 확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까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거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층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피스, 테코타일(역사각형), 테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